

견관절부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MRI의 역할 Role of MRI in Treatment of Shoulder Infection

울산대학교 서울 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전재명, 김유진, 이희진, 김기용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이미 형성된 농양은 되도록 시급하고 철저하게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견관절은 그 주변 부위와 여러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견관절내에 상완골 근위부의 골간단의 일부가 위치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견관절부위에 발생한 감염은 쉽사리 인근 부위로 전파되거나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기 쉽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견관절부위에 발생한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MRI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1996년 부터 1997년 까지 화농성 감염이 의심되어 MRI를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한 15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급성 감염을 의심하여 응급 MRI를 시행한 후 수술하였던 예가 13예였으며, 2예에서는 만성 감염을 의심하여 MRI를 시행하였다. MRI에서 발견된 병소는 수술시에 모두 확인하고 농양을 배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MRI의 소견과 수술소견을 비교하였다. 수술 후 감염의 소실, 기능의 회복과 관절간격의 유지 및 통증의 유무등으로 그 결과를 판정하였다.

모두 15예 중에서 MRI 소견에 하나의 병소만 있었던 예는 2예에 불과하였다. 병소가 두군데에 있었던 예는 8예였으며, 세군데였던 예는 4예였으며, 다섯군데에 병소가 있었던 예도 한예가 있었다. MRI의 소견에 따라 수술 도달법을 선택하여, 전방 도달법을 사용하였던 예가 10예로 가장 많았으며, 1예는 상방 도달법, 3예는 후방 도달법을 사용하였으며, 병소가 전후방으로 다섯 군데에 널리 분포하였던 예는 동시에 전방 및 후방의 양측 도달법을 사용하였으며, MRI 소견에 병소가 있었던 곳에 모두 감염의 징후가 있었다. 전체 15예 모두 감염의 징후는 소실되었으며, 12예(80%)에서 견관절의 기능 회복이 원활하였다. 관절 운동의 제한이 있었던 예가 2예였으며, 1예는 관절간격 협소와 동통이 잔류하였다.

MRI는 감염의 진단 뿐만이 아니라, 감염된 병소 및 그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술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수술 도달법을 결정하기에 용이하였으며, 수술시에 농양의 존재를 확인할 부위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농양을 배출시킬 범위의 결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MRI가 고가의 검사이기는 하지만, 화농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MRI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